

부처님이 새끼 뱀 사슴을 대신하여 죽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6)

녹야원의 기원

부처님께서 바라나국 녹야원에 계셨다. 녹야원은 5신통을 얻은 선인들이 살았으며, 범부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바라나국의 왕이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천 마리의 사슴 무리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왕이 병사를 동원해 사슴의 무리를 에워싸자 사슴 떼들은 두려워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어떤 놈은 땅에 엎드려 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석가모니불께서 보살로서 이 사슴무리의 왕이셨을 때의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슴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왕에게 부탁하여 반드시 목숨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라.”

부처님이 바라나국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지금 왕의 뜻을 살피건대, 천 마리의 사슴을 한꺼번에 죽여서 주방에 보내려 하십니다. 지금 다 잡아 놓으시면 고기가 상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닷다도 이때 사슴의 몸이었다. 날마다 한 마리씩의 사슴이 차출되어 왕에게 나아가 주방에 보내졌다. 어느 날, 데바닷다의 사슴을 왕에게 보낼 차례가 되었다. 새끼를 뱀 어미 사슴이 죽을 차례였다. 어미 사슴은 데바닷다에게 간청했다.

“저는 해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의 차례이기는 하나 뱀속의 새끼는 아직 차례가 아니오니, 원컨대 저의 차례를 조금만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데바닷다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빨리 가지 않느냐? 누가 너를 대신하여 먼저 죽겠느냐?”

어미 사슴은 울부짖으면서 이내 부처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 했다.

“원컨대 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차례를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사슴에게 물었다.

“저희들이 왕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고자 합니다. 왕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있게 되었고, 물과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마음대로 놀러 다녔던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받으러 나아가니 사슴들이 뒤를 따르며 왕궁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사슴 왕은 주방으로 나아가자 요리사는 사슴 왕을 보고서 이내 왕에게 말했다.

“사슴 왕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했다. “빨리 사슴 왕을 데리고 오라.”

왕이 사슴 왕에게 물었다. “천 마리 사슴이 다 되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부처님이 바라나국 왕에게 말했다. “천 마리가 새끼를 계속 낳아서 마침내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사슴의 무리는 날마다 더욱 불어날 지언정,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왕은 깊이 깨닫고 스스로가 모자랐음을 한탄했다.

“나는 기르는 짐승에 대하여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구나. 살아 있는 생명을 미친 듯이 죽이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

왕은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다. “왕의 명이다. 지금부터 사슴 사냥을 금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리겠다.”

그리고 사슴 왕을 돌아가게 하고, 나라 안에서 절대 사슴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녹야원(鹿野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출요경) 제9권에 나온다.)

동국대경원 발행 <경물(경물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



삽화·강병호

원컨대 왕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하루에 한 마리씩의 사슴을 죽여서 주방장에게 보내소서. 왕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저희 사슴들이 스스로 주방으로 나아가 죽음을 받겠습니다. 그리하면 고기 양은 줄어들지 않고 사슴 수는 갈수록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나국왕은 부처님에게 물었다. “네가 사슴들 가운데 최고 어른이냐?”

“그렇습니다.”

바라나국 왕이 다시 물었다. “너는 참으로 그리하겠느냐?”

“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은 이내 사슴을 내버려 두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때 천 마리의 사슴 무리는 부처님이 거느리고 있는 5백 마리와 데바닷다가 거느리고 있는 5백 마리를 합친 것이었다. 훗날 부처님의 사촌 데

“너의 주인은 허락하더냐?”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어미 사슴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을 받겠다.”

부처님은 이내 천 마리의 사슴을 불러 놓고 간절하게 경계했다.

“너희들은 절대 게으른 생각을 품지 말 것이며, 왕의 곡식을 욕심내지 말라.”

데바닷다는 다시 화를 내며 말했다. “너의 차례이거늘 왜 응하지 않느냐?”

부처님이 데바닷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런 말은 마시오. 어미 사슴의 차례이기는 하나 태안의 생명이 불쌍하여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슴들이 말했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16



주변과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 날 텔레비전 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닭 세 마리가 다른 닭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높은 나무 가지위에서 지내고 있었다. 먹이를 구할 때만 잠깐 잠깐 내려 왔다가는 다시 나무위로 올라갔다. 사람도 오르기 어려운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살면서 알도 낳고 했다.

닭 주인은 곡예를 하듯 나무 위로 올라가 알을 꺼내 와야 했다. 그 닭이 그렇게 살게 된 연유는 그 닭이 새끼 병아리였을 때, 11 마리의 병아리가 살았는데 모두 다른 짐승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자신과 두 마리만 살아남았다. 이때 놀란 병아리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고 오르다가 지금의 빈 가지집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직접 화면으로 보는 순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였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을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 얼마나 놀라고 겁이 났으면 그렇게 높은 곳의 가지집을 보금자리를 택했을까.

‘가지집의 닭’ 우리의 삶 보는 듯 편리한 세상이 다 좋다고 못해

닭의 동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생각했다. 다들 것이 없었다. 나무 위로 올라간 닭과 같이 위태로운 삶을 사는 가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밝이든 낮이든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이 가장 행복 한 삶이 아닐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가? 부모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을 신문 지상에서 자주 접할 때 마다 가장 소중 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옛날 사람들은 이웃이 한 가족이었고 남이 아닌 ‘가족’으로 살았다. 그 때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는 것이 따뜻했다. 지금 우리들은 ‘나’라는 존재에 빠져 자신마저도 바로 볼 수 없어 타인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인색하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는 서원을 한다. 낮이 되면 내가 지금 아침에 세운 서원과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밤이면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생각해본다. 내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준 말은 하지 않았는지, 후회할 일은 없었는지, 또 보람 있는 일은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나부터 달라져야 이웃이 편안해지고 이웃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사

람과 사람 사이엔 믿음이 최고이고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일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란 생각을 해본다.

나를 위한 편지

요즘은 손 글씨와 편지를 보기 힘들다. 간단한 메시지는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로 보내고, 편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메일을 쓰기 때문이다. 생활 전반이 디지털화 되어 모든 것이 손쉽고 빨라졌다. 하지만 생활이 손쉽고 빨라진 반면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앞서 말한 편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옛날에는 긴 편지 속에 마음에 담긴 글을 쓰며 몇 번이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서 정성스런 글씨로 연인끼리의 사랑도 키우고 가족들과의 안부도 물으며 가슴속에 간직할 이야기를 글로써 표현 했다. 그런 글들은 오래도록 보관되어 때때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손글씨 문자로 말하고 또 문자로 만남을 약속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이야기가 남지 않게 된다.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고 가벼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젊어 젊었던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다. 그 순간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꺼내놓았는데, 편지를 앞에 놓고 보니 한 장 한 장 다시 읽게 됐다. 그 편지들을 읽다가 그 글속에 빠져, 아니 그 때의 마음으로 돌고 돌아서 추억 속에 빠져지게 되었다. 나의 분심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져버렸다. 되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평상심을 찾은 나를 보고 놀라며, 먼저 마음을 연 나에게 고마워했다.

말은 내 벨고 나면 흔적이 없지만 글이란 이렇게 마음의 아름다움도 다시 치유 해주는 역할을 해주니 서로가 좋은 물건을 사주기보다 진심어린 마음의 글을 쓴다면 그건 가슴에 남는 선물인 것이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컴퓨터를 이용해 워드로 글을 쓰고 공책에 글을 쓰는 일이 줄었다. 사진도 핸드폰으로 손쉽게 찍었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지워버리니 너무도 편리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지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원망과 원한으로 더 큰 화를 부르는 일들은 더욱 많아진 듯하다. 뉴스에 올라올 만큼 끔찍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모든 일상이 순위어진 만큼 ‘용서’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용서도 순위어진 일이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편지를 쓸 일이 많지 않다면 이제 남에게 쓰는 편지대신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날마다 자신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묻고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승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공한 33가지

031-534-3373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을 높이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게,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圖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영(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s@daum.net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제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 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야사 출가 서술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주요저서 : 기도의 비법, 불교적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DM 카페 카페검색 * 차우천왕 힐링캠프